

해방기 좌익측 문학의 언표적 행위와 인민의 형성

여상임*

Ⅱ 차례 Ⅱ

- I. 머리말-해방 그리고 민족, 민족문학
- II. 인민성이라는 언표적 행위와 인민의 형성
- III.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체로서의 인민의 형상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의 문학이론과 문학평론, 시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념적 지향성을 인민성으로 보면서, 이것을 언표행위의 하나로서 보고자 한다. 좌익측 문인들은 해방기에 건설할 문학으로 민족문학을 주장하면서 민족문학의 이념과 지향성으로서 ‘인민성’이라는 개념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했다. 인민성에 기반한 민족문학론이라는 입장에서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이 개념이 문학론이나 문학평론에서 그리고 문학작품 등에서 변주되어 드러난다.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개념은 해방기 좌익측 문인들의 문학활동과 그 지향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개념으로 얘기될 수 있다.

‘인민성’이라는 개념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문학활동들은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의 언표 행위의 하나로서 볼 수 있다. 언어란 기본적으로 행동의 장에서 발생하는데, 이 행동의 장이란 곧 비물체적 변환들이 발생하는 장이다. 언표행위는 기계들의 비물체적 변환과 그것을 가져오는 언표들 사이에 존재한다. 언어적 행위는 바로 사건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사건의 발생이란 곧 신체들을 비물체적으로 변형시키는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어란 기본적으로 행동의 장에서 발생하는데, 이 행동의 장이란 곧 비물체적 변환들이 발생하는 장이다. 사람들은 명령어를 발하고 그 명령어들은 비물체적 변환을 야기한다.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은 언표행위의 주체가 되어 문학이나 문화 활동의 중요한 지향성으로 ‘인민성’이라는 언표를 발하는데, 이를 통해 당대의 일반 대중들로부터 피억압자이자 싸우는 자들로서의 인민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구성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방기라고 하는 당대 사회의 민족사적 과제를 책임질 특이점을 가진 주체로서의 ‘인민’을 불러내고 형성하게 되었다.

주제어: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 민족문학, 인민성, 언표적 행위, 인민의 형성

I. 머리말-해방 그리고 민족, 민족문학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에서 나온 여러 문학론이나 문학 평론, 소설이나 시 등의 문학작품들을 보다가 보면, 그 이전 시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용어나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민족’, ‘민족문학’, ‘인민’, ‘인민성’이라는 용어나 개념들이다. 물론 민족이나 민족문학 등의 용어는 해방기 이전 시기에도 우익측에 해당하는 작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이 때에 사용된 민족이나 민족문학 개념은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사용되는 민족이나 민족문학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이 시기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사용되는 민족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그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특징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민족문학 개념 규정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된 민중문학론과 민족문학론 논의로 상당부분 흡수되었는데, 이러한 민중문학론과 민족

문학론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이 해방기의 민족문학론을 본다면 이 시기의 민족문학론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조선에서 추구해야할 문학으로 ‘민족문학’을 주창한다.¹⁾ 이들이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 당파성에 기반한 프로문학을 카프 이후로 지속적으로 견지했던 것에 비하면, 이러한 민족문학론에 대한 추구는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 단절이라고까지 얘기될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이들은 해방기 현실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문학론으로서 왜 민족문학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논자들이 다수의 글들에서 얘기를 하기는 한다. 이들은 해방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사적 과제로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잔재를 청산하는 반제국주의적 과제, 해방기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제요소를 일소해야하는 반봉건적인 과제 등을 꼽는다. 그에 기반해서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 해방기에 필요한 민족사적 과제이고, 이러한 민족사적 과제를 문화와 문학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 민족문학(민족문화)이라고 결론짓는다.²⁾ 이들이 민족과 민족문학을 얘기하게 되는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하기는 하지만, 계급과 계급문학에서 민족과 민족문학으로의 선회에 대한 논리적 빈틈을 완전하게 메꾸지는 못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들의 계급과 계급문학에서 민족과 민족문학으로의

1)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 결정서」, 『문학』 1호, 1946. 7. 1946년 2월에 열린 전국문학자대회에서 조선문학가동맹은 조선문학의 기본임무가 민족문학의 수립에 있다는 것을 결정서로 채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서에 따라 임화(「조선 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6, 「민족문학운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 3호, 1947. 4), 한효(「민족문학과 정치성」, 문학, 1946. 7), 이원조(「민족문학 확립에」, 『조광』 123호, 1946. 3, 「민족문학론-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건설을 위하여」, 『문학』 7호, 1948. 4) 등 조선문학가동맹의 주요인물들이 민족문학론을 개진한다.

2) 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5. 11.

논의의 발전과정에서 완전한 비약이거나 단절로만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그 틈새를 이어주는 개념으로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개념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민족문학을 주장하면서 민족문학의 이념과 지향성으로서 ‘인민성’이라는 개념을 주된 방향성으로 설정했다. 인민성에 기반한 민족문학론이 이들이 추구하고 지향했던 문학론이다. 이들은 이러한 문학론에 기반해서, 문학론이나 문학평론, 더 나아가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생산한다. 인민성에 기반한 민족문학론의 입장에서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이 개념이 문학론이나 문학평론에서 그리고 문학작품 등에서 변주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성’이라는 개념은 해방기 좌익측 문인들의 문학활동과 그 지향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개념으로 애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방기 민족문학론과 이 시기 문학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는데³⁾, 이 시기 좌익측 문학과 문학론에서 핵심적 가치라 할 수

3) 이에 대한 연구는 문학운동론이나 이념논쟁 등에 대한 연구를 단행본으로 묶은 것으로 이우용 편저, 『해방공간의 문학연구』 I, II, 태학사, 1989;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등이 있다. 그리고 해방기 좌익측 민족문학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나 창작방법론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는 김양숙, 「해방직후 진보적 리얼리즘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박수연, 「해방기 문학비평의 담론연구: 문건과 프로문맹의 논의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하정일, 「해방기 민족문학론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등이 있다.

해방기 좌우의 전체의 문학론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제3문학사, 1989;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박필현, 「해방기 문학비평에 나타난 민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등이 있다. 시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김용직, 『해방기 한국시문학사』, 민음사, 1989; 신범순, 「해방기시의 리얼리즘 연구-시적 주체의 이데올로기와 현실성에 대한 기호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박용찬, 『해방기 시의 현실인식과 논리』, 역락, 2004; 광명숙, 「해방기 문학장에서 시문학의 자기비판과 민족 문학론」, 『한국시학연구』 제

있는 인민성 담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해방기 좌익측의 민족문화론과 이들의 문학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인민성 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민성 담론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개념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문학 및 문화활동들을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의 ‘언표 행위’의 하나로서 본다. 언어는 통상적으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명령어⁴⁾이다. 말의 근본형식은 판단의 언표나 느낌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 복종의 표시, 단언, 질문, 긍정과 부정이며, 준비됐나? — 예 — 합시다 처럼 삶에 명령을 내리는 것⁵⁾이다. 언어란 기본적으로 행동의 장에서 발생하는데, 이 행동의 장이란 곧 비물체적 변환들이 발생하는 장이다. 사람들은 명령어를 발하고 그 명령어들은 비물체적 변환⁶⁾을 야기한다. 언어는 현실을 지칭하

44집, 2015. 12 등이 있다.

4) 언어를 ‘명령어’로 보는 관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관점을 가지고 왔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자본주의와 분열증 2』 4장 ‘1923년 11월 20일/ 언어학의 기본 전제들’(G. Deleuze/ F. Guattari, 김재인 역/ 새물결, 2003)에서 언어의 기초 단위인 언표는 명령어라고 얘기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문법 규칙이나 계산 규칙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교사는 기호를 부과하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한다는 것이다. 문법 규칙은 통사론적 표지이기 이전에 권력의 표지이고, 언어는 정보로서의 기호의 소통이 아니라 명령어로 기능하는 말의 전달이라고 본다. 정보는 명령이 지시로서 송신되고 전송되고 준수되기 위해 필요할 최소치일 뿐이다.

5) G. Deleuze/ F. Guattari,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2003, 148쪽.

6) 이정우, 『천하나의 고원』, 돌베개, 2008. p.123.

비물체적 변형은 특정한 배치 아래에서 몸체들의 비물체적 속성에서 어떤 변형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사법적 배치물 속에서 피고를 죄인으로 변형시키는 판사의 선고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피고가 죄인이 되는 변형은 순간적 순수 행위 또는 비물체적인 속성이며, 판사의 선고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또한 성년, 은퇴 같은 나이 범주 또한

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개입을 한다. 이 개입은 현실을 예견하고, 퇴보시키고, 지연시키거나 가속시키고, 분리하거나 결합하고 또는 다르게 재단하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언표행위는 기계들의 비물체적 변형과 그것을 가져오는 언표들 사이에 존재한다. 언어적 행위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사건의 발생이란 곧 신체들을 비물체적으로 변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언어란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물체적 변환과 관련된다. 이것은 달리 말해 언어란 늘 사건과 더불어 작동한다는 것, 사건이란 기계적 배치들에서의 변화로부터 솟아오를 뿐만 아니라 명령어를 통해, 비물체적 변환으로서 발생한다는 것⁸⁾을 뜻한다.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은 문학이나 문화 활동의 중요한 지향성으로 ‘인민성’이라는 언표를 발한다. 이들은 이러한 언표행위를 통해 당대의 일반 대중들로부터 피억압자이자 싸우는 자들로서의 인민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마름질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방기라고 하는 시대에 당대 사회의 민족사적 과제를 책임질 특이점을 가진 주체로서의 ‘인민’을 불러내고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좌익측 문인들의 문학론이나 문학작품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방기라는 당대적 상황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사회에서 몸체에 즉각적으로 귀속되는 비물체적인 변형의 예로 볼 수 있다. G. Deleuze/ F. Guattari, 김재인 역, 위의 책, pp.147-167 참조.

- 7) 유재홍, 「들뢰즈와 문학-“언표행위의 집단적 배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60집, 2004. p.272.
- 8) 이정우, 위의 책, pp.122-123. 레닌의 「슬로건에 관하여」(1917년)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신체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에 그것을 언표행위의 배치로서 대중으로부터 마름질해 냈다. 레닌의 언표행위는 대중(의 일부)을 비물체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II. ‘인민성’이라는 연표적 행위와 인민의 형성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의 민족문학론을 볼 때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는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용어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인민’이라는 용어는 조선문학가동맹이나 조선공산당 등 좌익 측에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1945년 8월의 해방 직후 남한은 당대 사회 거의 전 영역에서 ‘인민’이라는 기표가 범람하던 ‘인민의 사공간’이었다. 이것은 해방공간의 정치·사회·문화 제 현장에서 쉽게 확인⁹⁾된다.

이 시기에 나온 사전에서 인민을 정의하는 것을 보면 국가에 있어서의 피통치자, 군주국가에서는 신민에 해당함¹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을 피통치자 일반으로 보고 있거나 일반 백성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군정에서 보통선거법 기초안을 만들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조선내든 조선외에서 조선인 양친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한다¹¹⁾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민이나 민족의 정의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조선인민의 자리에 조선국민 혹은 조선민족이라는 말을 넣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입장은 이 시기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번역되어 실린, 하지 준장의 포고문을 보더라도

9) 임종명, 「해방 공간과 인민,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연구』 제167집, 2014, p.193. 임종명은 이 글에서 ‘인민’이라는 이 용어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조직운영되었던 ‘인민위원회’에서도 사용되고, ‘조선인민당’이나 ‘근로인민당’과 같이 정당 명칭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보’, ‘인민’, ‘인민예술’, ‘인민평론’ 등 신문과 잡지명에서도 사용되고, 심지어 조선레코드문화협회가 주최한 행사명에서도 ‘인민가요 현상수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10) 이재훈, 『철학사전』, 동국문화사, 1952(1949), 임종명, 「해방 직후 인민의 문제성과 엘리트의 인민 순치」, 『동방학지』 제168집, 2014에서 재인용(33쪽).

11) 임종명, 「해방 공간과 인민,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p.196.

‘조선인민’이라고 번역 되어있는데, ‘인민’이라는 이 용어가 특정한 정치집단의 이념성이 반영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¹²⁾ 알 수 있게 한다. 이 인민이라는 용어는 해방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시기에도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인민은 집합적인 사회구성원 일반으로 인식된 개념이었는데, 이 용어는 전근대시기부터 이념을 초월해서 사용된 개념¹³⁾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시기까지 ‘인민’이라는 개념은 국민이나 일반 대중이라는 개념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이나 가치지향성을 지니지 않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개념이라기보다는 피지배자 일반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용어가 사회, 문화, 정치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인민’이라는 용어는 해방기라는 각 정치주체들의 욕망이 분출되고 경합하는 특정한 국면에서 변형과 생성의 과정을 겪게 된다. 피지배자 일반 혹은 국민 대중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호한 범주로 사용되던 ‘인민’이라는 이 용어는 조선공산당과 조선문학가동맹과 같은 언표행위 주체들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며 언표된다. ‘인민’은 이전의 개념들에서 탈코드화되면서 새로운 코드로의 변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 등의 좌익측 문인들은 언표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당대의 일반 대중들로부터 ‘인민’이라는 새로운 신체들을 발견해 내었다. ‘인민’이라는 신체들에 해방기 당대 사회변혁주체세력이라는 코드를 덧붙이면서 일반대중들로부터 구별

12) 박지영, 「복수의 민주주의들-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5권, 2014, pp.63-64 참조. 이 ‘인민’이라는 용어는 가장 보편적으로 소통되는 ‘people’의 번역어인데, ‘people’은 정치적 상황과 입장에 따라, 인민 외에도 민중, 시민, 국민, 평민, 대중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13) 박명규, 『국민, 인민, 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하, 2009, 박지영,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p.64).

되는 ‘인민’이라는 연표를 생성해내게 되는 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이 해방기에 주창했던 문학이 민족문학론¹⁴⁾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기에 민족문학론을 주창했던 것은 좌익측 문인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민족문학론은 많은 문인들에게 중대한 관심사였고, 각자의 입장에서 민족문학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¹⁵⁾했다. 김동리, 조지훈 등 우익측에 속하는 문인들 뿐만 아니라, 좌익이나 우익에 속하지 않았던 염상섭도 민족문학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글을 쓰기도 했다.¹⁶⁾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장 또한 연표행위 주체들의 치열한 각축장이었다. 해방기라고

-
- 14) 임화, 「조선 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6.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 3호, 1947.4/ 김영석, 「민족문학론」, 『문학평론』, 1947. 4/ 청량산인, 「민족문학론-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건설을 위하여」, 『문학』 7호, 1948. 4.

이들은 조선이 해방되었지만 일본제국주의 문화지배 잔재와 봉건문화 유물이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대적 개혁과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이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이를 위해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15) 김동리는 그의 글 「민족문학론」(『대조』 3권 3호, 1948.8)에서 민족문학은 민족성, 세계성, 영구성을 가져야 하는데, 민족문학은 민족적 개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세계적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서 시류와 연합하여 다수의 독자를 가지지 못한다하더라도 지속성을 보유했어야만 한다고 얘기한다.

조지훈은 「민족문화의 당면과제-그 위기의 극복을 위한 의의의 반구(反求)에 대하여-」(『문화』 창간호, 1947. 4)에서 해방기 당대를 민족문화의 위기의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이것이 민족적 주체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주체를 확립하고 민족정신을 고조하는 것을 당면의 과제로 얘기한다. 민족정신의 고조는 곧 인간정신의 고조이고 개인정신의 총화라고 본다. 이들도 민족문학론(민족문화)을 주창하는데 민족문학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족적 개성과 민족정신이라고 보고 있다.

- 16) 염상섭,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하여」, 『호남문화』 창간호, 1948. 5, 신형기 편, 『해방3년의 비평문학』, 도서출판 세계, 1988, 418쪽. 염상섭은 해방 직후에 민족문학이란 신용어를 쓰는데, 신문학이 대두한 이래 이러한 용어가 있었는가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 문화, 우리 문학, 조선문화, 조선문학으로 부르면 족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하는 행동의 장 안에서 언표행위주체들은 본인들의 언표로 개념에 대한 코드화와 탈코드화를 시도했다. 김동리를 비롯한 우익측 문인들은 민족정신의 발휘 구현과 문학정신의 옹호를 민족문학의 핵심적인 요소로 주장했다. 이와 달리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은 자신들의 민족문학론을 구축하면서, 인민과 인민성을 주요한 이념적 방향으로 언표했다. 이는 이 시기 다른 언표행위주체들의 민족문학론과는 본성적으로 다른 민족문학론을 언표행위를 통해서 생성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민성’이라는 언표는 이전 시기 좌익측 문인들이 견지했던 계급 문학의 계급성이라는 이념적 지향성 또한 일정부분 포함하면서도 ‘지양’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했다.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은 그 뿌리를 1920~30년대 계급주의 문학운동을 표방했던 카프에 두고 있다. 카프가 계급성에 기반한 계급주의 문학을 추구했던 점을 생각해본다면, 해방기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이기는 하지만 이전 시기 자신들의 문학적 지향성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이 ‘인민성’이라는 개념은 이전 시기 좌익측 문인들이 주창했던 계급문학과 계급성이라는 가치지향성을 포함하면서도 본성상으로는 다른 새로운 이념적 지향성을 담지한 언표로서 드러나게 되는 지점인 것이다.

사실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의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개념은 이들 문인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해방기라는 당대적 상황을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단계로 인식하면서, 반제 반봉건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세력들과 함께 공유하는 개념이었다. 해방기 좌익운동세력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조선공산당은 ‘우리의 민족문화는 민족의 해방과 국가의 완전독립, 토지문화의 평민적 해결의 기초위에서 통일된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인 동시에 인민의 문화로서 민족문화, 이

것이 인민적 민주주의적 진보적 민족문화의 수립, 이것이 우리 문화전선의 당면 과업이 되는 것'¹⁷⁾이라고 선언한다. 이들은 해방기 당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가 아니라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라고 규정했고, 이러한 혁명단계에 기반해서 수립해야할 문화(문학)는 민족문화(문학)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민족문화는 인민의 문화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공산당의 이러한 노선은 해방기에 활동했던 상당수의 좌익측 조직들이나 인사들에게 지도적인 방향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시기 좌익측 문인운동단체로서는 최대 조직이었던 조선문학가동맹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문학가동맹에서는 해방기에 건설할 문학(문화)으로 민족문학(민족문화)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학(문화)의 주된 방향성으로 '인민성'을 주창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론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개되었는데, 특히 1946년 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서울 종로의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전국문학자대회는 이들 논의를 총집대성해서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문학자대회가 열리는 대회장에는 '조선민족문학수립만세'라고 써붙인 슬로건¹⁸⁾이 걸려 있었고, 이 슬로건은 이들의 문학적 방향성을 핵심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들은 조선문학의 기본임무가 민족문학의 수립에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제국주의적 문화지배의 잔재와 봉건주의적 유물의 청산이 당면 과제임을 지적한다¹⁹⁾고 선언한다. 이 문학자대회는 조선문학가동맹이라는 문단의 거대

17)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조선민족문화건설의 노선(잠정안)」, 『신문학』 창간호, 1946.4

18) 이용악, 「전국문학자대회 인상기」, 『대조』1권 2호, 1946. 7.

19)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 결정서」, 『문학』 1호, 1946년 7월. 전국문학자대회에서 「조선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임화)를 비롯하여, 조선시(김기림), 소설(임화), 희곡(한화), 이론 및 평론(이원조), 창작방법(김남천), 농민문학(권환),

조직과 문단의 주요 인사들이 주체가 되고, 수백명의 방청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태준을 필두로 초청문인들이 입장하기 시작하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고 많은 문인들이 뒤를 이었다²⁰⁾고 하는데, 문학자대회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과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해방기에 수립할 문학이 민족문학이라는 것이 언표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기 민족문학론이 이들 조선문학가동맹 쪽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익측의 전조선문필가 협회에서 주요한 이론가로 활동했던 김동리 또한 민족문학론을 제기한다. 그는 현단계의 조선문학의 과제로서 우리 민족의 문학적 지표란 민족문학 수립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²¹⁾고 말한다. 김동리 또한 해방기라는 당대적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문학적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민족문학의 수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선적 성격을 탐구하고, 민족정신을 발휘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조지훈에게서도 드러난다. 조지훈은 오늘의 민족적 생활의 파멸은 민족문화의 파멸에서 온다고 결론지으며, 민족문화 건설의 당면과제는 민족적 주체의 확립과 민족정신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가 말하는 민족정신은 인간정신의 특수적 문화표현이라는 것²²⁾이다.

아동문학(박세영), 고전문학(김태준), 세계문학(김영진), 국어의 재건과 문학의 사명(이태준), 계몽운동과 문학 등(김오성),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신남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 20) 이우용, 「전국문학자대회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 제16권, 1991. p.364.
 21) 김동리, 「조선문학의 지표-현단계의 조선문학의 과제」, 『청년신문』, 1946.4.2. 이러한 논의는 김동리가 그의 글 「민족문학론」(『대조』 3권 3호, 1948.8), 「순수문학의 진의-민족문학의 당면과제로서-」(『서울신문』, 1946.9.15) 등에서도 지속하고 있다.
 22) 조지훈, 「민족문화의 당면과제-그 위기의 극복을 위한 反求에 대하여」, 『문화』 창간

이렇게 보면 해방기에는 그 이전 시기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던 민족문학이라는 이 개념이 연표행위의 장 안에서 연표행위 주체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연표행위 주체들은 본인들의 민족문학론의 성격을 선명하게 하고자 하는데, 조선문학가동맹 측에서는 그 핵심 방향성으로 ‘인민’, ‘인민성’을 연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연표행위를 통하여 당대에 제기된 여타의 민족문학론과 본인들의 민족문학론을 구별해내고자 했다.²³⁾ 뿐만 아니라 피지배자 일반이라는 의미로 일정부분 가치중립적으로 사용되며 실체가 모호했던 ‘인민’이라는 용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도했다.

우리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 투쟁을 통하여 인민 전체의 문화로 성장시켜 가는 한편, 인민 자신의 손으로 생산되는 문화 또는 노동자 계급, 농민, 일반 근로자 자신의 문화적 창조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의 육성을 조력하여 조선문화가 명실공히 인민 자신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요컨대 문화활동의 기초와 목적을 한 가지로 인민에 둘 것, 이것이 현재 우리의 문화통일 전선 운동의 기준이요 노선이 되어야 한다.²⁴⁾

위 글은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주요한 문학이론가로 활동했던 임화의 글이다. 이 글에서 임화는 해방기 당대 문화운동의 기본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호, 1947.4

23) 이 시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의 ‘인민’개념은 노동자, 농민, 기타 중간층이나 지식계급 등을 포괄하면서 피착취의 사회계급을 토대로 하는 사회계급적인 요소를 가진 개념이다. ‘인민성’은 이들의 피착취의 사회계급으로서의 속성과 가치지향성을 담지한 개념으로 얘기될 수 있겠다.

24) 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5.11.

논한다. 그는 문화운동의 기본방향이 문화통일전선에 있으며, 제기되는 과제로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지배가 남긴 악잔재, 이조 봉건사회에서 물려받은 봉건적 잔해, 새로 이입된 부패기 시민문화의 단면” 등을 일소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화(문학)활동의 기초와 목적을 오로지 ‘인민’에게 두라고 강조한다. 인민들이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게 하고, 인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 조선의 문화가 인민 자신의 문화가 되도록하는 것이 민족문화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의 기초와 목적을 인민에게 두라고 하면서, 누가 인민인가, 인민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근자에 쓰는 인민이란 개념의 내용을 잠 밝힐 필요가 있다. 인민과 극히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 민족, 민중이란 말이 있다. 국민이란 간단히 말하여 일정한 국가에 속한 민중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민족이란 개념도 역시 국민과 비슷하여 비록 독립한 국가에 법적으로 속해 있지 않고 과거의 조선민족과 같이 타국의 지배하에 있을때라도 인종적 또는언어적 기타 약간의 주로 자연사적인 공통성을 가진 일정한 인간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비하여 민중이란 이 위의 두가지 말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한 국민 한 민족 가운데서도 민중이란 대중이란 말과 같이 주로 피치자를 가르키는 말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피치자도 피압박의 인민층만을 민중이라고 부르느냐하면 그렇다고만 대답키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다.(…)인민이라는 것은(…) 노동자나 농민 기타 중간층이나 지식계급 등등을 포섭하는 의미에있어 이말 가운데에는 피착취의 사회계급을 토대로한다는 일층 농후한 사회계급적인 요소가 보다 더 많은 개념이다. 현대가 민중이란 말 대신에 인민이란 말을 쓰는 것은 아마 현대에 있어 사회적 모순해결에 국가적 민족적인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기본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때문인 것같다.²⁵⁾

여기에서 임화는 인민이라는 개념을 국민, 민족, 민중, 대중이라는 개념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민의 개념을 정의한다. ‘국민’은 일정한 국가에 속한 민중의 총칭으로, ‘민중’은 한 국민, 한 민족 가운데서도 대중이란 말과 같이 주로 피치자를 가르키는 말로, ‘민족’은 국민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종적 또는 언어적인 공통성을 가진 일정한 인간의 총칭으로 얘기한다. 이러한 개념들과 차이가 나는 개념이 바로 ‘인민’인데 노동자, 농민, 일반 근로자, 기타 중간층, 지식 계급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일정하게 피착취를 받는 자들이라는 사회계급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한다. 인민은 해방기 당대에 민족의 압도적인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야이야말로 사회적 모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대 사회의 특권계급적인 지배나 기구의 형성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인민적 민주주의적인 변혁의 주체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 임화는 다른 한편으로 ‘인민’의 사회계급적 내용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민에 속하는 계급계층들 중 노동계급이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점, 농민계급과 중간층 등은 계급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소시민성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인민의 범주내로 여러 계급과 계층들이 포괄되지만 그 가운데 노동자계급성이 인민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문화가동맹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던 임화의 이러한 논의는 ‘인민’

25) 임화, 「문학의 인민적 기초」, 『중앙신문』, 1945.12.8-14.

여기에서 임화가 사용하는 민족개념은 이후에는 개념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후에는 민족의 개념이 인민의 개념과 유사하게 변모된다. 그리고 민중 개념에 대해서는 한 국민 한 민족 가운데서도 대중이란 말과 같이 주로 피치자를 가르키는 말이라고 보면서, 인민이란 말이 민중이란 말보다 사회 계급적인 요소가 더 많은 개념 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인민성'에 대한 기존의 코드를 탈코드화 시키며 새로운 코드를 생성해 낸 것이다. 이 시기에 이렇게 다소 가치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언표되던 인민이라는 개념을, 임화를 비롯한 조선문학가동맹 측에서는 피지배자이자 당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변혁의 주체라는 코드로 변용시켜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인민은 '제국주의 전쟁의 무서운 압력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최후의 일선까지도 허물어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자이고, 끊임없는 오욕과 부패로 인하여 정신생활의 근저까지도 유린당하고 있는 자이며, 각각으로 수탈당하고 있는 생활의 자유를 되찾고 지켜야 하는 자'²⁶⁾라는 신체로의 변용을 겪게 되는 것이다. 권환 또한 “우리가 잠시라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운동의 주체적 대상은 인민의 절대다수를 점령한 노동자, 농민이며 또 우리는 금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명일의 준비도 잊지 아니하여 노동자, 농민과 기타 광범한 대중”²⁷⁾이라고 강조한다. 권환은 예술운동의 현단계에 있어서 진보적 민주주의 예술가들이 동일한 전선으로 통일해서 힘을 합할 것을 얘기하면서, 운동 주체와 방향성은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인민대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민족문학의 핵심적인 이념적 지향성으로 인민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이들의 민족문학론이 여타의 다른 민족문학론과 본성적으로 구별되도록 만드는 지점이었다. 이 과정에 인민이라는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고, 이들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언표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 시기 민족문학론 논의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임화와 이원조(청량산인)의 민족문학론에서 잘 드러나 있다.

26) 한효, 「조선 문학운동의 현단계」, 『인민』 2권, 1946.1

27) 권환, 「문화전선도 급속 통일하자」, 『중앙신문』, 1946.1.9-11.

민족은 폐왕도 아니요, 자본가도 아니요, 지주도 아니요, 어느 외국관서의 속리도 아니요, 바로 인민 그 자신이란 이념이다. 백년이나 천년 전의 찬란한 내력을 가진 조상도 아니요, 바로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란 이념이다. (….)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은 폐왕이나 자본가나 지주나 어느 외국관서의 속리들이 권세와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과 월급쟁이와 샅일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 이념인 것이다. (….)

반제 반봉건적인 인민전선을 기초로 한 식민지의 민족형성 과정에 있어 자본가와 지주들은 스스로 인민으로부터 이탈하여, 동시에 민족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식민지 민족의 해방투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민족의 구성요소는 결국 노동자, 농민, 소시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전 세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민족 내부의 모든 특권층을 제외한 인민들의 인민전선적 집합체인 것이다.²⁸⁾

이 글은 해방기에 여러논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민족문학론에 대해 그 개념과 이념적 지향성의 범주를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이 여타의 다른 민족문학론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으로 제기해온 것이 인민성이라는 개념인데, 인민성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족문학의 이념적 지향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민족문학론에서 ‘민족’의 범주를 규정하면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온 한민족 전체를 민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 혈통에 근거해서 민족을 규정하는 입장은 주로 우익측 논자들에게서 주장되었는데, 혈통에 근거한 민족 규정에 대한 거부는 우익측의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임화는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보다는 자기 개인이나 특정한

28) 임화,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 3호, 1947.4.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타민족의 이익에 협력했던 이들도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왕이나 자본가 그리고 지주나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이들은 민족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임화는 민족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준으로 민족의 자유와 해방에 복무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제시하면서, 오로지 노동자, 농민, 월급쟁이와 샅일꾼, 소시민 등의 인민 만이 이러한 민족의 구성요소에 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자본가나 지주, 외국관서의 숙리 등은 민족의 자유나 해방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하게 복무했고 더 나아가 민족의 속박과 억압에 기여했으므로,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인민은 피억압자들인 자기 자신과 다른 피억압자들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고, 피억압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꺼이 나설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민에는 노동자, 농민, 월급쟁이와 샅일꾼, 소시민 등이 포함된다.

사실 해방기 이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임화가 인민이라는 범주로 묶은 이들을 하나로 통칭할 수 있는 개념이 마땅히 없었다. 사회적 제 모순의 담지체이자 변혁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이 있었으나, 이 개념에는 노동자계급이나 소작인 등 피억압자로서의 소수만이 포괄될 뿐이었다.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은 계급성이라는 가치를 선명하고 명료하게 내세울 수는 있었지만, 사회 관계 내에서 다수대중을 포괄해 낼 수는 없는 개념이다.²⁹⁾ 해방기라고 하는 당대에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주적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소수의 주체

29) 일제 강점기 때 카프의 프로문학론에서 피억압자이자 제 모순의 담지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설정하고, 이들이야말로 당대 사회의 제 모순을 해결할 사회변혁의 주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카프문인들의 문학활동 또한 언표행위의 하나로 얘기될 수 있겠다.

로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해방기는 다양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집단들이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충돌하고 투쟁하는 상당히 특이점을 가진 시기였는데, 이러한 시기에 사회변혁의 주체를 설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언표적 행위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측에서는 인민이 아직은 신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인민’을 언표행위의 배치로서 마름질해 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좌익측의 언표행위의 결과로서 노동자, 농민, 소시민 지식인, 월급쟁이와 샅일꾼, 민족부르조아지 등은 인민의 범주로 묶이면서, 당대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체로서 신체적 변형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들은 그 이전에는 단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고, 지주에게서 돈을 빌려서 죽지 못해서 농사짓는 소작인이고, 돈을 벌기 위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월급쟁이에 불과했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을 피억압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더 나아가 인민이라는 범주로 묶어내면서, 당대 사회변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성취할 민족사적 주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에서는 이렇게 ‘인민’이 하나의 신체로서 형성되기 전에, ‘인민’이라는 언표행위의 배치를 통해서 당대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체로서의 ‘인민’이라는 신체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정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안으로부터 언어에 작용하는지를 주목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명령어(=슬로건)가 바뀌자마자 정치는 어휘뿐 아니라 구조며 모든 문장 요소들을 변주³⁰⁾시키게 된다. 언표 행위를 통해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러한 효과는 새로운 신체의 비물질적인 생성이라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좌익측 문인들은 문학론을 세워나가는 이론적인 활동뿐만 아니

30)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p.163.

라 실제적인 문화활동들, 그리고 더 나아가 문학작품활동 등을 통해 인민이라는 새로운 신체의 구성을 해나가게 된다. 이들은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언표적 행위를 통해서, 다수대중들로부터 피억압자이자 싸우는 주체로서의 인민이라는 신체를 구성해내었다.

Ⅲ.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체로서의 인민의 형상

해방기에 나온 문학작품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해방의 의미에 대해 천착한다. 해방이 되고 난 직후에는 해방된 현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작품들이 많았다.³¹⁾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잦아들면서는 해방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하게 되는데, 해방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들도 있지만 해방이 되어도 해방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작품들도 많다. ³²⁾해방된 현실에 대해 설정식은 “곡식이 익어도 익어도 쓸데 없는 땅/ 모든 人民이 등을 대고 돌아선 땅(...) 땀을 흘려도 흘려도 쓸데 없는 땅/ 太陽없는 땅”³³⁾이라고 한탄한다. 이 시에서는 “성난 南山 숲 어

31) 조영출은<슬픈 歷史의 밤은 새다>(『햇불』, 우리문학사, 1946.4)에서 ‘지금 오! 지금 / 이 슬픈 슬픈 歷史의 밤은 새다.// 보라 저 푸른 하늘, / 저 太極기 꽃인 지붕을 넘어오는/ 붉은 太陽아/ 오! 붉은 太陽아/ 슬픈 歷史의 밤은 永遠히 밝았느냐’라고 노래하면서, 일제 강점으로부터 조국이 해방된 감격과 기쁨을 드러낸다.

김기림은<새나라 頌>(『문학』 창간호, 1946.7)에서 ‘거리로 마을로 山을 골짜구니로/ 이어가는 電線은 새나라의 神經/ 이름없는 나무 외따른 洞里일망정/ 빠진 곳 하나 없이 기쁨과 피/골고루 도라 다사론 땅이 되라// (...) 어린 새나라 하나 시달린 꿈을 깨서 눈을 부린다./ 東海 푸른물 허리에 떨며 이러니는 「아프디테」-’로 노래하면서, 해방된 새조국에 대한 현사를 감격스럽게 표출한다.

32) 박용찬, 「해방기 시의 현실인식과 창작방법 연구-리얼리즘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12, p.100 참조.

데서나 이는 거센 바람 일드시/ 버리고 다러난 槍끝같은 보습들이 꽃인대로/ 길게 길게 도라누운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대한 항거와 투쟁 그리고 패배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당대의 현실이 드러난다. 황소처럼 어질고 둔하고 무식했던 인민들이었으나, 성난 숲의 거센 바람이 일듯이 일어났다가 무참하게 패퇴당한 인민들과 그 현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당대의 현실을 이 시에서는 ‘모든 인민이 등을 대고 돌아선 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해방된 당대 현실에 대해 이렇게 처음부터 아무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된 현실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희망 또한 있었다. 해방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인 각 개인의 삶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권환은 “九州탄광으로 끌려갔던 金春甫도/ 二年만인 그저께야 돌아왔다/ (...) 夜學敎 좁은 강당에선/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일어나다/ 學兵서 돌아온 德洙君의/ 각모를 휘두르며 부르짖는 演說會다/ 이 넓은 『삼거리』들(野)도 모두/ 우리들 땅입니다 인젠”³⁴⁾이라고 하면서, 해방된 현실이 개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피나리 붓짐에 바가지 하나만 들고 고향을 떠나 만주로 갔던 이들도 돌아오고, 탄광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들도 돌아왔다. 수탈과 억압을 일삼던 이들은 떠나가고, 이 땅에 터전을 둔 백성들은 고향을 찾아 돌아왔던 것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삼거리의 넓은 들이 “제 등이”나 “영목이”로 대변되는 지주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인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직접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겠다는 것과 그 감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박아지의<農民歌>(『예술운동』 창간호,

33) 설정식, <太陽없는 땅> 부분, 『種』, 백양당, 1947. 4

34) 권환, <故郷>부분, 『햇불』, 우리문학사, 1946. 4.

1945.12)에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새로운제도/ 가는땅을 농민에게 논하 주어라/ 씨뿌리고 매다르고 거들것이니/ 자유로운 생산이 이것아니야// (….)해방과 자유를 노래하면서/ 새사회의 건설에 힘을써보자”라고 하면서, 해방된 조선에 대한 기대가 드러난다. 새로운 토지제도와 그런 제도 하에 서의 농민들의 자발적인 생산과 소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어 드러나는 것³⁵⁾이다.

이렇게 해방에 대해 해방된 초기에는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미군정이 점령군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해방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우세하게 드러나게 된다. 해방의 의미에 대해 시선은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해방의 의미를 천착한다. 이런 작품들 가운데에서도 이외는 다른 지점에서 해방이 된 이후 새롭게 언표로서 선언되고 구성되는 ‘인민’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어찌면 관념적이고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개념을 문학작품 속에서 구성해낸다. 문학평론이나 문학론에서는 이론적인 작업으로 ‘인민’이라는 언표를 마름질해냈다면, 문학작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형상으로 이를 구성해낸다.

(…)

東天에 새로운 햇살이 뻗칠 때

35) 이러한 시들에 이찬의 <아오라지 나루>(『햇불』, 우리문학사, 1946.4)도 있다. 이 시는 ‘코스모스 옥어진 漣川마을엔/ 한글 공부소리 박넙굴보다 더 낭자하고// (….) 기다려도 기다려도 못건너는 나루에/ 三七制의 새 소식을 새 소식을 부르니// 나루 지기 할아버지의 늙은 불에도 웃음이 돌며/ 휘연히 아오라지의 긴긴 밤도 밝아오는 것이었다’라고 해방된 현실을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노래하고 있다. 해방이라는 사건은 당대 일반 대중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던 이들에게 글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소작농들에게 삼칠제라는 구체적인 노동조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노래한다.

自由를 謳歌하라는 解放의 種 올려
 우리의 江山 三千里에
 三千萬 人民이 떼지어 歡呼하며 行進하는 가운데
 나는 높이 손들어 외치며 돌아오도다
 하나의 人民은 한알의 조각들
 쌓고 쌓여 크고 굳은 주초를 세우자고³⁶⁾

이 시는 해방전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던 이들이 해방 후 다시 돌아온 조국에서 인민들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래한 시이다. 해방기에 나온 시들을 보다보면 인민이라는 시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도 그런 시들 중의 하나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倭敵과 살찐 者들에게 빨리고 핏귀여/ 明太 같이 앙상한 人民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들이 ‘인민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수탈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착취자들끼리 연대해서 착취자들을 향해 일어서서 싸우는 이들로 그려진다. 특히 “하나의 人民은 한알의 조각들/ 쌓고 쌓여 크고 굳은 주초를 세우자고”하는 데서는, 인민이 국가 건설의 기초단위라는 의미를 구성해내고 있다. 이 시를 통해 구축되는 인민의 형상은 구체적인 개인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착취자이지만 그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연대하여 싸우는 이들이라는 의미를 형성해내고 있는 것이다. 박세영은 자유와 해방이 쟁취된 근로대중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날러라 붉은 旗, 이 땅우에 날러라’로 표현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는 싸우는 자로서의 ‘權力의 人民’³⁷⁾을 얘기한다.

36) 이경희, <귀환> 부분, 『조선시집』, 아문각, 1947. 3.

37) 박세영, <날러라 붉은 기>, 『햇불』, 우리문학사, 1946.4 이러한 시들에는 여러시들이 있다.

박세영의 다른 시 「民族叛逆者」(『햇불』, 우리문학사, 1946.4)에서는 ‘人民의 뜻을

밤마다 오는 사람
하루종일 들에서 일하는 그 사람
거머리에 뜻기고 배암에 물리고
나중에는 지주에게 모조리 뜻기는
巨人갓튼 그 사람과
하로라도 못만나면 섭섭하고나.

(…)

몇칠 안남은 메-데에
우리를 농민조합은 데-모를 하고야 말갯다는 말을
이리하여 우리들은 밤을 새우며 뼈라를 박는다
그날의 읍내를 련상해 가면서.³⁸⁾

이 시에서 ‘밤마다 오는 사람’은 시적 화자인 ‘나’를 통해서 보여진다. 그는 거머리에게 뜯기고 뱀에 물리고 지주에게 수탈당하면서도 하루종일 들에서 일을 하는 농민이고, 자신의 농토가 아닌 지주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다. 날마다, 일년 열두달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지주에게 생산의 결과물을 다 빼앗기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보기에다 딱할 정도로 말라 보인다. 그런 그의 처지는 “그렇게도 가난하고 소가튼 신세에 억

제치고 나스는 건/ 어리석고 못한 者, 그것이 民族叛逆者외다’라고 하며, 민족반역자와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이들이 인민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낸다. 민족반역자들이 자기 개인의 이해와 요구 때문에 민족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면, 인민은 다수대중과 민족의 이해와 요구를 지켜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입화의 시<獻詩-朝鮮青年團體總同盟 結成大晦에>(『찬가』, 백양당, 1947.2)에서는 시의 부제에서 드러나듯 청년단체결성대회에 붙이는 헌시이다. 여러 청년단체 청년들이 모여 결성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인민공화국의 수도’라고 명명한다. 노래와 연설과 구호를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 주체로서의 인민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8) 박세영, <밤마다 오는 사람>, 『신문학』 창간호, 1946. 4.

때”인 것으로 얘기된다. 그는 농민이자 소작인이고 지주의 논에서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서부터 매일의 일상적인 삶과 그 존재 자체, 더 나아가 정서나 정신적인 것까지 매여 있었던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으므로 가진 자인 지주에게 작은 땅 한 켠이라도 얻어 붙이기 위해 지주 앞에서 굶주리며 눈치를 보고, 때로는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채 그 집의 온갖 대소사까지 도맡아서 해주어야 한다. 소작인으로서의 이런 농민의 모습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별반 새로운 것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시는 이렇게 운명에 순응하고 지주에게 신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 존재자체까지도 얽매어 있는 그런 농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농민은 노동절 데모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 밤새워 뼈라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는 ‘우리들 농민조합은 메이데이에 데모를 하겠다’고 하면서 데모를 하는 날 사람들에게 뿌릴 뼈라를 밤새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그는 시적 화자인 내게는 “강판 같은 그의 손/ 슬린더 가튼 팔뚝을 내저어 악수를 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진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물로의 변이가 가능했는지 시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농민조합과의 만남이 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과 감각들을 체득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한 번 정해진 삶의 처지와 조건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힘있고 가진 자들이 정한 법칙과 질서에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들은 무조건 순응해야만 한다는 이데올로기쯤은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질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삶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고자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대우가 옳지 못하다는 것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

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감각으로 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배우게 된 것³⁹⁾이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나’인데, ‘나’의 시선을 통해 ‘그’가 드러난다. ‘나’의 시선이 ‘그’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관찰하는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메이데이 즉 노동절 데모를 준비하며 그를 “우리의 동무”라고 부른다. 시적 화자인 ‘나’는 여기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보적 지식인으로 보이는데, 이 진보적 지식인과 농민 그리고 노동자가 ‘우리’가 되어 당대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우리’는 피억압자들인 자기 자신과 다른 피억압자들을 위해 함께 싸우며, 피억압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자들인 ‘인민’이다.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싸우는 인민을 노래하는 것이다.⁴⁰⁾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에서 제시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체로서의 인민 그리고 인민성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작품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있고, 이 시기에 적실한 문학은 민족문학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족문학은 인민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언표행위가 이렇게 구체적인 작품의

39)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감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이규원의〈해방공장〉(『우리문학』 10호, 1948.9)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난 이후 공장을 운영해나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주의적인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감각들을 체득해가는 것을 보여준다. 공장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수회의”를 하고, 공장 전체 노동자들의 토의 공간인 “종업원 대회”를 열기도 하고, 공장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도 한다. 어떤 중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회담”을 하기도 한다. 좌익 측의 인민민주주의라는 지향성이 이전과는 다른 의사결정 방식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 다른 감각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0) 김동석, 「인민의 시-전위시인집을 읽고」, 『예술과 생활』, 박문출판사, 1947.6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근로자 계급을 영도적 지위로 한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자본가를 포함하고, 민족의 반역자인 제국주의의 주구를 제외한 인민의 문학⁴¹⁾을 구축하고자했던 좌익측 민족문학의 지향성을 구체적인 시적 언표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에 속한 문학인들은 인민이 누구인지, 인민성이란 무엇 인지를 문학론이나 문학평론 등의 형태로 언표화한다. 이러한 작업은 문학과 같은 이론적 작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향성에 걸맞는 인민의 형상을 시적인 언표로서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당대에는 아직 실체로서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인민의 형상을 문학적 언표를 통하여 생성해내고자 했던 것이다. 농민이라는 기표는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의 인민성이라는 담론과 접속하면서 기존의 코드가 탈각되고 새로운 코드로의 변이를 겪게 된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인민성담론과 농민이라는 기표가 접속되면서 기존에 농민이라는 기표에 부여되어 있던 굴종과 굴욕, 고개숙임, 무력함과 비천함, 운명에 순응함이라는 코드가 탈각되고, 굳셈과 강인함, 고개를 뚫, 저항과 항쟁, 운명의 개척이라는 새로운 코드가 덧붙여지게 된 것이다. 언표적 배치는 기계적 배치를 통어하게 되고, 언표들은 기계들에 대해 ‘코드’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기계들 위에 초월적으로 군림한 어떤 코드가 작동할 때 기계들은 일정한 영토화를 겪게 된다.⁴²⁾ 농민이라는 언표는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의 인민성이라는 언표와 만나면서 운명에 순응하면서 고개를 숙인 자들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운명을 개척하는 싸우는 자들이라는 코드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문학가동맹의 인민성 담론과 접속되면서 노동자라는 기표

41) 김영석, 「민족문학론」, 『문학평론』 제3호, 1947.4.

42) 이정우, 『천하나의 고원-소수자 윤리학을 위하여』, 돌베개, 2008. p.24.

또한 싸우고 투쟁하는 인민이라는 새로운 코드로의 변이를 겪게 된다. 노동자는 이전과는 다른 정동을 담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 측은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등을 ‘인민’의 범주로 묶어내면서 이들에게 해방기 역사변혁의 담지체라는 코드를 부여하였는데, 노동자가 인민의 범주로 묶이면서 이러한 노동자 또한 싸우는 인민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품값을 올려다구
 일하는 시간을 주려다구
 노동자가 지질히 천대받든 노동자가
 당당히 정치의 자리에 서서
 노동자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인민의 나라를 하로 바빠 세워라
 (…)

굴뚝 버터 솟은 저 공장이 완전히
 우리의 손아귀에 도라오면
 (…)

나는 영웅두 정치가두 아니다
 한개 근로하는 공장 노동자
 허리 굽은 소작인의 딸루
 무리에 끼어가며 이렇게 자랑스럽다

아아 공장은 나의 위대한 일터
 나의 신성한 학교다
 (…)⁴³⁾

43) 상민, <女職工>, 『獄門이 열리는 날』, 신학사, 1948.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때썩에 저른 해여진 부루-스와/ 뒤축 물러난 고무신”을 신은 여성 공장 노동자다. 그리고 “우박보다 무서운 공출 난리에/ 비단 찢는 공장에 팔려온/ 강원도 두메 소작인의 딸”이다. 그는 쌀이 없어서 멸건 비지 찌개를 겨우 끓여먹고, 허름하고 낡은 옷차림으로 바쁘게 출근길을 채족한다. 그렇게 출근하면서도 강원도 시골에서 소작농으로, 행랑살이를 하는 가난한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낡은 옷차림과 초라하고 파리한 외모를 가진 비단 찢는 공장에 팔려온 평범한 여직공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상민의 시에서 드러나는 여직공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여직공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와 공장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노동조건과 환경의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가진 인물이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을 팔고, 주어진 조건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는 날마다 일터와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이 자신과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공장에 간다. 12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끼 쌀값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에 대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품값을 올려달라, 근로시간을 줄여달라, 노동자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는 명확한 자기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더 나아가 그는 공장 노동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처지와 소작인의 딸이라는 신분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럽다고 여기고 있다. ‘굵높은 뽕죽구두와 여우 목도리’를 한 여인들과 자가용 탄 신사들을 보며 “너이두 일을 하구 먹으려무나”라고 하는데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여직공은 노동자라는 존재가 가진 가치, 더 나아가 피억

압자로서의 자신의 처지, 이러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들까지 체화한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그럴때도 그들은 개인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집단과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이 시에 나오는 여직공은 피억압자로서의 자신의 처지와 그러한 처지를 깨뜨리기 위한 방향성과 목적,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자신을 인민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러한 활동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현재는 한 개의 공장에서 싸우는 노동자이지만, 해방기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인민의 하나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여직공은 인민이라는 언표와 만나면서 신체의 변이를 겪게 된다. 고개숙임, 굴종, 나약함, 무력함, 수동적임과 같은 코드에 묶여있던 여직공이라는 기표는 고개를 들, 당당함, 자랑스러움, 강인함과 같은 코드로의 변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조선문화가동맹측의 이러한 언표행위는 새 시대를 열어가갈 주역으로서의 노동자, 해방기 역사변혁의 담지체라는 주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주체화는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배치물에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상민의 이 시가 공장 노동자로서의 여직공을 시적 화자로 내세워 해방기라고 하는 당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인민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내고 있다면, 임화의 시 「우리들의 戰區-勇敢한 機關區 警備隊의 英雄들에게 바치는 노래」⁴⁵⁾는 투쟁하는 철도노동자와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억압과 수탈에 대항해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의 형상을 구성해내고 있다.

44) G. Deleuze/ F.Guattari,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p.154.

45) 임화, <우리들의 戰區-勇敢한 機關區 警備隊의 英雄들에게 바치는 노래>, 『찬가』, 백양당, 1947.2.

이 시를 보다보면 독특한 지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시의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전면에서 나와 있는 ‘우리’라는 시적 화자이다. 이 시는 1946년 10월에 있었던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에서 ‘우리들의 전구’, ‘기관구는 우리들의 불멸한 성곽이라’고 말할 때의 ‘우리’라는 시적 화자와 총파업에 참가하며 싸우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전구’라고 할 때의 시적 화자는 ‘용감한 기관구 경비대의 영웅들에게 바치는 노래’를 쓴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이 싸움을 자신의 싸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들이다. ‘우리’라는 시적 화자는 총파업을 단행하며 싸우고 있는 철도노동자는 아니지만, 이들과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이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시적 화자는 철도노동자는 아니지만 철도노동자까지도 포함하는, 더 나아가 철도노동자들과 하나가 된 시적화자이다.

侵入者を 防禦하라
 抵抗하거든 對抗하라
 그래도 드러오거든
 生命이 있는 限 싸우라
 (…)
 勝利냐 그렇지 않으면 敗北냐
 (…)
 죽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냐⁴⁶⁾

위의 인용부분은 임화의 이 시를 강력한 투쟁 무기로 만들면서도 시적인 강렬도를 높이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를 보면 기관구 철도 노동자들의

46) 임화, 위의 시, 부분.

총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적 화자인 ‘우리’의 목소리와 실제 기관구 경비대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구별이 되지 않고 겹쳐져 있다. 이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두 목소리가 구별되지 않는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본다는 절박한 요구를 시적 화자인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적 화자인 ‘우리’ 안에 철도노동자들도 함께 묶이게 되고, 그렇게 그들이 함께 묶이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인민의 원수”들과 이들이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총파업에 참여한 철도노동자와 시적 화자인 ‘우리’는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 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임화는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그것에 동일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서 함께 생사를 같이 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인민은 자기 일 개인의 안위와 안락을 위해서 전체 인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등한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다. 임화는 1946년 10월 항쟁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나면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구현해내기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의 인민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10월 항쟁과 철도 총파업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노동자들과 대중들을 ‘인민’으로 언표하면서, 노동자들이나 일반 대중인 이들에게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체라는 이념적 방향성을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이 언표는 조선문학가동맹 뿐만 아니라 해방기 좌익측의 주요한 운동세력들이 주된 이념적 방향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들은 인민, 인민성을 피억압자이자 그러면서도 인민민주주의를 이룰 주된 동력으로 이들을 언표했다. 이러한 언표행위는 이론적 작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통한 형상으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노동자, 농민, 소시민, 월급쟁이와 샅일꾼 등의 인민은 가난하고 무지하며 천박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체라는 새로운 담론적 코드가 부여된 신체가 되도록 했다. 그 이전에 이들을 규정하던 빈곤과 무지와 저급함이라는 담론적 코드에서 인민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주체라는 새로운 담론적 코드가 덧붙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표행위를 통해 월급노동자, 샅일꾼, 노동자, 농민은 싸우는 자들이자 자유와 해방을 향해 전진하는 인민이라는 신체로의 비물체적 변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연표가 구체적인 신체들에 삽입되고 이러한 신체들의 비물체적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천시하지 않게 되며, 노동자 스스로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하는 자라는 담론적 코드로 자신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인민, 인민성이라는 담론적 코드가 구체적인 노동자 농민 등을 인민들이 되도록 비물체적인 변환을 이루게 한 것이다.

IV. 맺음말.

해방기 조선문학가 동맹을 비롯한 좌익측에서 나온 문학이론들이나 문학평론,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보다가 보면, 그 이전시기와는 확연히 다르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 이들은 그 이전시기에 주장하던 프롤레타리아트 문학을 주장하기 보다는 민족문학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문학은 우익측이 주장하는 혈통이나 전통에 근거한 민족문학론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이들이 해방전까지 노동자계급성에 기반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주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인민성에 기반한 민족문학론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다.

이들은 해방기라고 하는 당대의 민족사적 과제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입장에 근거하여, 인민성에 기반한 민족문학론을 주장한다. ‘인민’ 혹은 ‘인민성’이라는 용어가 해방기 만큼 빈번하게, 그리고 특정한 정치집단과 문학집단의 명확한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내는 좌표로 쓰인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에서는 해방기의 일반 대중들 속에서 노동자, 농민, 소시민, 월급쟁이와 샅일꾼, 민족 부르조아지 등을 피억압자이자 이러한 억압과 수탈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의 인민으로 언표한다. 언어적 행위는 특정한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들은 해방기에 인민이라는 신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인민성이라는 언표를 통해서 당대 일반 대중들로부터 인민을 형성해 내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측 문인들은 문학론이나 문학평론, 시작품 등을 통해서 인민성이라는 언표적 행위를 발하게 되고, 이러한 언표적 행위를 통해서 당대 일반 대중들로부터 피억압자이자 싸우는 자들로서의 인민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들은 문학이나 문화 활동의 중요한 지향성으로 ‘인민성’이라는 언표를 발하면서, 이를 통해 당대의 일반 대중들로부터 피억압자이자 싸우는 자들로서의 인민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구성해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방기라고 하는 시대에 당대 사회의 민족사적 과제를 책임질 특이점을 가진 주체로서의 ‘인민’을 불러내고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권 환, 『햇불』, 우리문학사, 1946. 4.
- 권 환, 「문화전선도 급속 통일하자」, 『중앙신문』, 1946.1.9-11.
- 김동리, 「조선문학의 지표-현단계의 조선문학의 과제」, 『청년신문』, 1946.4.2.
- 김동리, 「민족문학론」, 『대조』 3권 3호, 1948.8.
-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민족문학의 당면과제로서」, 『서울신문』, 1946.9.15.
- 김승환·신범순 엮음, 『해방공간의 문학』 1,2 돌베개, 1988.
- 박세영, 〈밤마다 오는 사람〉, 『신문학』 창간호, 1946. 4.
- 상 민, 『獄門이 열린 날』, 신학사, 1948.
- 설정식, 『種』, 백양당, 1947. 4
- 염상섭,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관하여」, 『호남문화』 창간호, 1948.5
- 오현주 엮음, 『해방기의 시문학』, 열사람, 1988.
- 유진오 외, 『전위시인집』, 노농사, 1946.
- 이용악, 「전국문학자대회 인상기」, 『대조』 1권 2호, 1946. 7.
- 이원조(청량산인), 「민족문학론-인민민주주의민족문학건설을 위하여」, 『문학』 7호, 1948. 4.
- 이원조, 「민족문학 확립에」, 『조광』 123호, 1946.3,
- 임 화, 『찬가』, 백양당, 1947.2.
- 임 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5.11.
- 임 화, 「민족문학운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 3호, 1947. 4.
- 임 화, 「조선 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6
- 임 화, 「문학의 인민적 기초」, 『중앙신문』, 1945.12.8-14.
-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 결정서」, 『문학』 1호, 1946년 7월
-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조선민족문화건설의 노선(잠정안)」, 『신문학』 창간호, 1946.4
- 조지훈, 「민족문화의 당면과제-그위기의 극복을 위한 反求에 대하여」, 『문화』 창간호, 1947.4
- 한 효, 「조선 문학운동의 현단계」, 『인민』 2권, 1946.1.
- 그 외 해방기 시집 및 신문, 잡지 자료

〈저서 및 논문〉

- 강진숙, 「기표적 기호학'을 넘어'탈기표적 기호론'의 정치로」, 『문화과학』 제19호, 1999, pp.127-148.
-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92.
- 김용직, 『해방기 한국시문학사』, 민음사, 1992, p.129.
- 박지영, 「복수의 민주주의들-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대동 문화연구』 제85권, 2014년, pp.49~89.
- 박필현, 「해방기 문학 비평에 나타난 민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송기환·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2.3, 태학사, 1991.
-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 유재홍, 「들뢰즈와 문학-“언표행위의 집단적 배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 연구』 제60권, 2004. pp.253-277.
- 이우용, 「전국문학자대회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 제16권, 1991. pp.359-391.
- 이정우, 『천하나의 고원』, 돌베개, 2008.
- 임종명, 「해방 공간과 인민,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연구』 제167집, 2014, pp.193-246.
- 임종명, 「해방 직후 인민의 문제성과 엘리트의 인민 순치」, 『동방학지』 제168집, 2014. pp.29-69.
- G. Deleuze/ F.Guattari,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최문수, 「행위로서의 언어와 의미-들뢰즈와 퍼스의 화행론」, 『영어영문학』 제55권 제1호, 2009. pp.199-213.
- 하정일, 「해방기 민족문학론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Abstract

Left-Wing Literature's Locutionary Act and the Ideal of "the Peopl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Yeo, Sang-im

This thesis examines the ideological orientation revealed in the literary theory, literary criticism, and poems of left-wing literary figures, including the "Joseon Writers' Uni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focusing on its locutionary act and expression of the ideal of "the people." These left-wing writers viewed the literature of the liberation period as national literature, and the ideal of "the people," or "the people's identity" as its vision and orientation. . This vision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literature of the liberation period, including literary theory, literary criticism, poetry, and other literary works .

Expression of the ideal of the people and other literary activities based on it by the Joseon Writers' Union and other left-wing writers can be seen as a locutionary act. Language operates in a field of action in which immaterial transformation takes place. As people share ideas, ask questions, or issue commands, their words change others' thoughts, beliefs, and possibly actions. In promulgating the ideal of the people, left-wing writers made the general public aware of them as oppressed and struggling. . Through their locutionary act the people became the national and historical focus of contemporary societ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

Key Word : the liberation period, Joseon Writers' Union, national literature,
people's identity, locutionary act, formation of the people.

여상임

소속: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sangim89@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5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